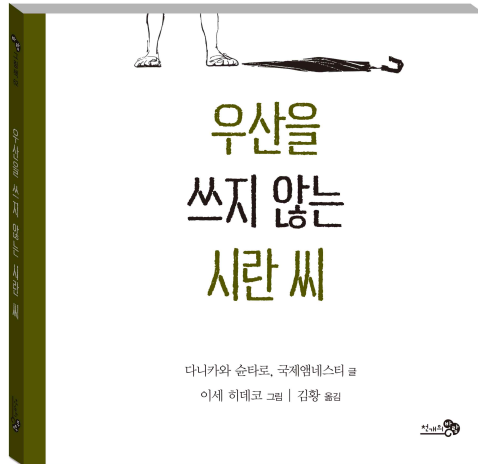




#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 독후활동지

모두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이상하고 위험한 일일까?  
고통 받고 있는 먼 나라 사람은 나와는 아무 상관없을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풀려나도록 편지 쓰는 일을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시란 씨는 생각했지요.

“만나 본 적도 없는 먼 나라 사람의 이야기야. 나랑은 상관없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란 씨가 감옥에 갇힙니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을 쓰지 않는 시란 씨** 다니카와 순타로, 국제엠네스티 글 | 이세 히데코 그림 | 김황 옮김

### •• 교과연계 ••

5학년 1학기 2. 1. 인권을 존중하는 삶

5학년 1학기 2. 3. 헌법과 인권 보장

6학년 2학기 1. 4. 행복한 삶과 인권

6학년 2학기 4. 3. 함께 해결하는 지구촌 문제

[책 읽기 전에 생각해요]

1. 시란 씨는 왜 우산을 쓰지 않을까요? 시란 씨가 우산을 쓰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상상해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1.

2.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전쟁이나 자연 재해, 배고픔 등으로 고통 받는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나요? 뉴스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그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Blank space for writing an answer to question 2.



[책 읽고 생각해요]

1. 만약 시란 씨처럼 우산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당할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요?



2. 시란 씨가 체포된 후, 장관은 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생각'이라고 말했을까요? 또 '생각을 조심해야 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3. '인권'이란 무엇일까요? 왜 인권을 존중해야 할까요?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answer to question 3.

4.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시란 씨를 위해 편지를 써 보세요.

Blank space for writing the letter to Si-ran, with a small illustration of a postman in the bottom right corner.





## [함께 읽어요]

기사 1.

“우리 아이들은 학교·병원도 못 간다”…혐오와 탄압, 결국 학살로

2019.02.15.

경향신문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로힝야<sup>1)</sup> 주민 다수가 정규교육 못 받고 학교선 ‘검둥이’라 불려  
허가증을 받지 않고 결혼했다는 이유로 5년간 구금당하기도  
미얀마군, 기도하면 체포하고 종교적 이유로 기른 수염도 깎아  
“변화 위해 아웅산 수지에게 투표했는데…” 시민권도 박탈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의 로힝야 마을 촛핀 출신인 마스민(28·가명)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인근 두 곳의 초등학교에 로힝야 아이들은 다닐 수 없다. 마스민은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도, 시장에도, 병원에도 가지 못한다”며 “불교도에겐 자유가 있지만 우리 무슬림(이슬람교도)에겐 자유가 없다”고 말했다. 마스민의 자녀들은 2017년 8월27일 마을에 몰려온 군인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2017년 8월 말 로힝야 마을에서 잇달아 벌어진 집단학살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미얀마 군부는 ‘테러리스트 토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앞서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오래전부터 자행했다. 혐오와 차별, 탄압이 총칼을 휘두르며 목숨을 앗아가는 학살로 이어졌다. 로힝야는 그동안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고 자유로운 행동과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하는 미얀마 정부의 체계적인 박해를 견뎌내야 했다.

(……)

### ■ 교육·결혼·종교도 제한

로힝야 마을 주민들은 대체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아디와 인터뷰한 촛핀 마을 주민 40명 중 9명만 학교를 다녔다. 9명 중 5명은 초등교육을 마치지 못했다. 최고학력은 10학년(고1)이었다. 툴라퓌리 마을에서도 78%의 주민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로힝야 학생들은 대학입학 시험도 치를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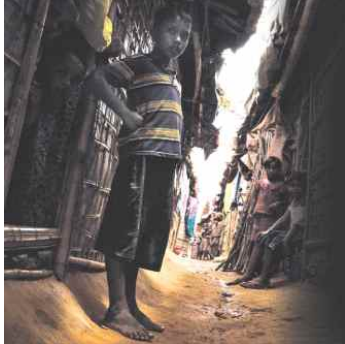
학교에서도 차별이 이어졌다. 라카인주에 사는 타민족 출신 교사와 학생들이 로힝야 학생들

1) 로힝야족. 미얀마에 주로 거주하는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슬람교도라는 이유로 불교도가 대다수인 미얀마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고 있어요.

을 차별했다. 로힝야들이 모여 사는 라카인주에는 로힝야 외에 다른 소수민족들도 살았다. 대부분 불교도인 이들은 주로 이슬람교도인 로힝야를 핍박하고 혐오해왔다. 학교에선 로힝야들이 방치됐다.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수업이 진행됐다. 교사와 학생들은 로힝야를 인종주의적 혐오표현인 ‘칼라’(Kalar, 검둥이)로 불렀다.

(.....)

종교의 자유는 심각하게 제약받았다. 불교도가 다수를 접하는 미얀마에서 이슬람교인 로힝야는 자유롭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다. 보통 종교 활동은 마을의 여러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를 드리거나 경전을 읽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미얀마 정부는 로힝야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했다. 주민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됐고, 종교 활동도 할 수 없었다.



**박탈된 교육의 기회**

췌핀 마을(인터뷰 주민 중 40명 기준)	
"정규교육 못 받았다"	: 31명
"초등학교 중퇴"	: 5명
최고학력	: 고1(1명)

뿔라뿔리 마을(인터뷰 주민 중 73명 기준)	
"정규교육 못 받았다"	: 57명
"초등학교 중퇴"	: 11명
최고학력	: 고3(4명)

돈괵 마을 주민 알리힘(61·가명)은 “경비대들이 마을 주민들의 종교활동을 금지했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몰려와 때리고 체포해갔다”고 말했다. 종교활동을 못하게 하려고 감시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기른 수염을 강제로 깎아버리기도 했다.

(.....)

이동도 철저히 통제됐다. 병이 들거나 다쳐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보건소 등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로힝야에 대한 치료를 거부했다. 치료를 해주더라도 다른 환자보다 더 비싼 비용을 내도록 했다. 한 췌핀 마을 주민은 질병이 심각한 환자들은 국경을 몰래 넘어 방글라데시로 가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했다. 이마저 적발되면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투표 참여도 불가능하다. 2015년 총선 이후 로힝야의 투표권은 대부분 박탈됐다. 인딘 마을 출신 나흐맛(35·가명)은 좀 더 나은 변화를 위해 2015년 무렵 아웅산 수지 현 미얀마 국가자문역에게 투표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 나흐맛은 그 후 투표권을 잃었고, 2017년 8월25일에는 마을로 들어온 군경에게 남편도 잃었다.

미얀마의 군대나 정부는 일자리가 없는 로힝야를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사용했다. 시민권을 박탈한 뒤 일종의 임시 신분증인 국적확인카드 등록을 강요했다.

아디는 이러한 탄압을 막으려면 우선 미얀마 정부가 공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탄압을 주도한 정부는 로힝야의 존재조차 부인한다. 아디는 이런 상황에서 차별

과 탄압, 학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치해 진상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에 집단 학살 사건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으로 추진된 탄압 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입법·행정 조치를 도입해 로힝야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관행을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아디는 지적했다. 미얀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혐오와 차별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로힝야에 대한 집단 학살과 사회적 탄압이 뿌리 깊은 혐오감에서 유발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학살 보고서는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미얀마 정부는 피해자에게 권리구제 수단을 제공해야 하며, 집단학살 책임자 조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면책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50600075&code=940100#csidx7caec6289eb9201bc51da03b6b4842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2150600075&code=940100#csidx7caec6289eb9201bc51da03b6b48425)

기사 2.

**청소년들 '학생인권조례' 제정' 위해 일곱번째 촛불 든다**

2019.03.27.

오마이뉴스 윤성호 ysh@ohmynews.com

**조례만드는청소년, 28일 저녁 창원 촛불 ... "조례안 수정에 비판"**

청소년들이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다시 촛불을 든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28일 오후 6시 30분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청소년 촛불집회"를 연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의 청소년행동분과다. 이들은 지난 2~3월 사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촛불집회를 열어왔고, 이날 행사는 마지막이다.

이들은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체벌 등 '학생다움'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져 온 인권침해적인 규제와 통제, 훈육과 같은 폭력은 2019년이 된 지금도 학교에 만연히 남아있는 문화"라고 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이제는 학생을 '학생답게' 라는 틀에 가둘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간답게' 대접해야 한다고 말하며 학생이 존엄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유를 누릴

---

2)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칙이에요.



권리,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례"라고 덧붙였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학교가 폭력의 공간이 아닌 인권의 공간으로 변화하려면 우리에게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학생인권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했고, 오는 4월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 수정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

조례만드는청소년은 "이날 집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박종훈 교육감의 발언들과 행동들을 수정된 조례안에 빗대어 풍자하는 '교육감의 일기' 상황극 퍼포먼스를 한다"고 했다.

또 이날 청소년들은 "수정된 경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는 28일 오후 1시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인권조례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

원문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963&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22963&CMP_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